

## 『桂苑筆耕集』 所載 崔致遠의 漢詩 小考

윤인현\*

<차 례>

- I. 序 論
- II. 崔致遠에 대한 후대의 일부 부정적 논평
- III. 『桂苑筆耕集』 所載 漢詩의 개관
- IV. 前代 文學사상의 계승과 漢詩 作법의 학습
- V. 結 論

### <국문초록>

본고는, 『계원필경집』에 실린 漢詩 60首를 통해 고운 최치원의 문학 형성기에 나타난 작가적 역량과 前代의 文學사상 계승 그리고, 전대의 漢詩 作법의 학습 및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桂苑筆耕集』 卷十七의 紀德詩 30수는 후대의 목적시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는 고운이 고병의 종사관(비서실장)이 되어 그의 덕을 기리면서 바친 시로 모두 칠언절구의 형식이다. 紀德詩 30首는 고병의 일대기를 압축해 놓은 듯한 시로, 고병이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내세관을 지녔으며, 詩·書·射 등 文武를 겸비한 인물임을 드러낸 시였다. 또한 그런 인물에게 고운 자신이 의탁해야 하는 당위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桂苑筆耕集』 卷二十에는, 고운의 漢詩 중 칠언절구와 오언율시 각각 15首씩 30首가 전해진다.

『계원필경집』 소재 漢詩 60首의 주제는, 고병의 영웅적 행적을 예찬한 紀德詩 30首와, 타국에서의 뿌리 내리기 위한 求官의 모습, 18년 동안 타향살이 한 결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귀국길에서 느끼는 귀향의 즐거움, 그리고 사물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경물의 묘사 등이었다. 경물시에서는 특히, 어려운 현실을 꺾

\* 용지 세무대 겸임교수

뜻하게 극복한 고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桂苑筆耕集』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前代 문학사상의 계승은, 우선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 등 종교적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와 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는 전통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여 영웅적 인물을 예찬하고 칭송함으로써 평화로운 國泰民安의 정치 현실을 작가적 이상 세계로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典故를 활용하는 用事으로써 문학 작품의 사상적 깊이와 내용적 충실성을 갖출 수 있다는 문학 사상을 터득한 점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 후대의 일부 논평은 고운의 시가 괴이하고 난삽하다고 하였는데, 그런 논평은 고운의 문학을 올바로 평한 것이 아니다. 고운이 用事を 많이 하였기 때문에 시가 괴이하고 난삽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일부 논평자들이 용사한 구절을 함축적인 의미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운은 오히려 精切한 용사를 통하여 新意를 드러내었다.

고운의 전대 한시 작법의 학습은 典故 활용의 詩法에 능한 唐 나라 시대의 이하와 이상은의 문학적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백거이의 작품이 고운의 작품에 點化된 점을 미루어 보면, 고운은 晚唐의 문인 백거이로부터 한시 작법에서 영향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지은 『桂苑筆耕集』은 우리 나라 한문학의 문학 양식이 확립된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문집이며, 최초의 개인 문집으로의 의의도 있다. 따라서 흥만중이 논평한 것처럼, 고운은 우리 나라 한문학의 시조라 할 수 있겠다.

주제어 『桂苑筆耕集』, 작가적 역량, 前代의 문학사상, 한시 작법의 학습, 영향관계

## I. 序 論

본고는, 崔致遠의 문학 작품 중에서도 초기의 작품에 해당되는 『桂苑筆耕集』 소개의 한시들을 고찰함으로써 최치원 문학 형성기의 작가적 역량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치원의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최치원의 초기 문학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그의 문집 『桂苑筆耕集』에 관해서만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그의 문학을 고찰한 연구 논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치원의 문학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 초기의 문학적 소산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의 문학적 성취를 아울러 바르게 살펴보는 데 하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최치원의 『桂苑筆耕集』 소재의 한시를 고찰하되 그의 문학에 대한 후대의 일부 부정적인 논평을 살펴보는 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최치원의 문학에 대한 후대의 긍정적인 논평이 오히려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부정적인 논평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논평을 행한 소이언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그 긍정적인 논평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치원의 문학에 대한 긍정적인 논평을 살펴보는 일은, 본고의 그 뒷부분에서 논의하게 될 <『桂苑筆耕集』 所載 한시의 개관> <前代 문학사상의 계승과 한시의 작법> 등을 논의하면서 곁들여 행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桂苑筆耕集』 所載 한시의 개관>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시의 개관 및 그 전반적 성격’ 그리고 ‘한시의 소재와 주제’로 나누어 논의하고, <前代 문학사상 계승과 한시 작법의 학습>을 논의하는 데에는 ‘前代 문학사상의 계승’ 그리고 ‘前代 한시 작법의 학습’으로 나누어 논의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唐詩가 우리 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 온 것은 통일신라 시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의 통일은 신라의 많은 유학생들을 唐 나라로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 후기 崔瀧(최해)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당 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한 숫자만도 58명에 이르렀다고<sup>1)</sup> 하였으니, 실제로 당 나라에 건너간 유학생들은 수백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1) 崔瀧, 『拙藁千百』 卷二, 『送奉使李中父還朝序』, “凡等賓貢科者, 五十有八人.”

서 당 나라 유학생들이 귀국할 때에는 그들이 보던 서적도 가지고 돌아왔을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서적들 중에는 唐代 시인들의 시집도 있었을 것이다. 당 나라 유학생들이 유학한 시점은, 대개 中唐(766~835)과 晚唐(836~906)<sup>2)</sup>이 교차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그 당시 당 나라의 詩風으로 인하여 통일신라의 시풍도 중당과 만당의 시적 분위기를 띠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활동한 문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었다. 최치원은, 당 나라에서 유학생생활을 하고 벼슬까지 한 인물이었다.

최치원이 당 나라에서 귀국하여 신라의 헌강왕에게 雜詩賦와 表奏集 28권을 올렸다.<sup>3)</sup> 그 때 왕에게 올린 그 28권 중에 『桂苑筆耕集』 1부 20권 있었다. 『桂苑筆耕集』에는 305편의 文과 60수의 한시가 실려 있었다. 『桂苑筆耕集』은, 그로써 우리 나라 한문학의 문학 양식이 확립된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문집이며, 한국 한문학 사상 ‘開山鼻祖’<sup>4)</sup>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최치원의 유일한 문집이었다. 이는, 이규보가 『白雲小說』에서 “崔致遠孤雲, 有破天荒之大功, 故東方學者, 皆以爲宗.”(고운 최치원은 파천황의 큰 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학자들이 모두 종주로 삼는다.)<sup>5)</sup>이라고

2) 成樂喜, 「崔致遠의 詩精神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1986) 91쪽, 참조.

唐詩의 시기구분은 明의 高棅에 의해 정립된 四分說에 의해 初·盛·中·晚의 四期로 나눈다.

初唐(618~712) : 高祖 武德 初에서부터 玄宗 開元 初까지 약 90여 년.

盛唐(713~765) : 開元 天寶를 거쳐 文宗 大歷 初까지 약 50여 년.

中唐(766~835) : 大歷 初에서부터 文宗 大和 9년까지 약 70여 년.

晚唐(836~906) : 文宗 開成 初에서부터 昭宗 天祐 3년까지 약 80여 년.

3)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校印桂苑筆耕集序」, 5쪽, 참조.

“賜紫金魚袋臣崔致遠進所著雜詩賦及表奏集二十八卷”

4)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校印桂苑筆耕集序」, 4쪽, 참조.

5) 李奎報, 『白雲小說』三.

洪贊裕, 譯註『詩話叢林』(上), 通文館, 1993, 9~10쪽.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桂苑筆耕集』所載 최치원의 한시를 통하여 선대의 일부 비평가들이 평한 것처럼 과연 최치원의 시문이 사륙변려문으로 인하여 괴이하고 난삽하며 사상적 깊이가 없었는가, 아니면 오히려典故를 이용하는 가운데에도 新意를 나타냈는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치원의 한시와 더불어 최치원에 대한 후대의 논평을 검토하여 그 방증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최치원 문학에 대한 연구는, 평전 형식의 글과 문학 연구 및 사상 연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참고할 만한 논저도 적지 않았다.<sup>6)</sup> 따라서 필자가 의도한 연구 방향에 의해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그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본고의 논의에 반영될 것이다.

- 
- 6) 徐首生, 「東國文宗 崔孤雲의 文學」, 『語文學』 통권 1, 2호, 한국어문학회, 1956.  
 李能雨, 「新羅의 知性」, 『한국의 人間像』 5, 新丘文化社, 1966.  
 李家源, 「震域 漢文學의 鼻祖 孤雲 崔致遠」, 『韓國名人小傳』, 一志社, 1975.  
 朴魯春, 「崔致遠의 詩作品數 小考」, 『東洋學』 5집, 단국대학 출판부, 1975.  
 金惠淑, 「崔致遠의 詩文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宋恒龍, 「崔致遠의 思想研究」, 『韓國哲學思想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閔丙秀, 「高麗時代의 漢詩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李慧淳, 「新羅 末 賓貢諸子들의 詩에 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7집, 1984.  
 金重烈, 「崔致遠의 文學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成樂喜, 「崔致遠의 詩精神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金福順, 「新羅 下代 華嚴宗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李在云, 「孤雲 崔致遠의 思想과 歷史意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崔英成, 「崔致遠의 哲學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이구의, 『崔孤雲 文學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 II. 崔致遠에 대한 후대의 일부 부정적 논평

여기서는, 최치원의 문학에 대한 후대의 일부 부정적 논평을 재논함에 있어, 먼저 후대의 비평가들이 행한 그 부정적인 논평은 타당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부정적 논평의 소이연은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桂苑筆耕集』의 문체는 당시 당 나라를 풍미하였던 四六駢儷文으로 되어 있다. 최치원이 入唐했던 시기가 懿宗(의종)·僖宗(희종) 년간의 晚唐 초기에 해당된다. 이 때는 한 때 古文運動으로 위축되었던 變려문이 당 나라에서 다시 성행하던 시기였다. 『校印桂苑筆耕集序』에서 洪奭周는 최치원이 사육변려문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를 “公之入中國，在唐懿僖之際，中國之文，方專事駢儷，風會所趨，固有不得而免者.”(공이 중국에 들어 간 것이 당 나라 의종·희종대이다. 중국의 文은 비야흐로 오로지 변려문만을 사용했으니, 풍조의 취향을 진실로 면 할 수 없는 자가 있었다.)<sup>7)</sup>라 하여 사육변려문이 당시의 풍조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육변려문은 精切한 用事·알맞은 對偶·조화된 押韻 등 형식미가 잘 이루어진 것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최치원의 한시에도 典故를 인용한 用事が 많을 뿐 아니라, 字數·對偶·聲律 등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한 것이 많다.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최치원의 한시는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면에 치우쳤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실제로 후대의 일부 비평가들은 대개 최치원의 문장이나 시작품을 <괴이하고 난삽하며 기교에 치중한 글로 비판하거나, 자기의 博學을 과시하기 위한 術學的인 글>로 비판하였다.

고려의 이규보는 “其詩不甚高.”(그 시는 크게 빼어나지 못했다.)<sup>8)</sup>라 하

7)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1, 『校印桂苑筆耕集序』, 3쪽, 참조

8) 洪萬宗, 『詩話叢林』3.

洪贊裕, 譯註『詩話叢林』(上)3, 通文館, 1993, 9~10쪽.

였으며, 고려 때의 승려 天頤은 「答藝臺亞監閔昊書」에서 “自古業儒之士，心出月脇，作爲章句，其或駢四儷六文乎者也。著成文集，誇耀於世，既是流蕩之心，綺飾之辭，厥罪不少。”(예로부터 유학을業으로 삼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공에 뜬 달과 같은 상태에서 章句를 지으니, 그것이 아마도 사륙변려문이 아닌가 한다. 文集을 지어 세상에 자랑한들 이는 이미 방탕해진 마음과 화려하게 꾸민 문장이니, 그 죄가 적지 않다.)<sup>9)</sup>라 하여, 최치원의 문장은 사륙변려문이기 때문에 문집을 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한들 그것은 방탕한 마음을 부추겨 오히려 죄가 되는 행위라 하였다. 또한 조선 초 서거정도 “今桂苑筆耕，多有不解處，恐當時氣習如此。”(지금 『桂苑筆耕集』에 해석하지 못할 곳이 많은데, 아마도 당시의 氣習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sup>10)</sup>라 하였으며, 또한 “以今觀之，致遠文章，詭澁僻，不足動天。”(지금의 관점에서 보건대, 최치원의 문장은 괴이하고 난삽하여 죽히 천하를 움직이는 데 부족하다.)<sup>11)</sup>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서거정은, 최치원의 문장을 어려운 典故 인용과 기교적인 對偶로 인하여 후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괴이하고 난삽한 문장이라 하였다. 成倪 또한, 최치원의 시구를 “意不精，雖工四六而語不整。”(의미가 정밀하지 못하고 비록 사륙문을 잘하였지만 말이 정제되지 못하였다.)<sup>12)</sup>이라 하여, 최치원의 시문을 부정적으로 논평하였다. 그리고 許筠도 “淺薄不厚”(천박하여 深厚하지 않다.)<sup>13)</sup>라 하였다. 최치원에 대한 이런 비판적 시각은 근세에 이르러서도 이어졌다. 丹齋 申采浩는 『朝鮮上古史』에서 “그 사상

9) 『韓國佛教全書』 제6책, 210쪽.

天頤, 『眞靜國師湖山錄』 下篇, 「答藝臺亞監閔昊書」

10) 徐居正, 『筆苑雜記』 卷一.

11) 徐居正, 『筆苑雜記』 卷二.

12) 成倪, 『慵齋叢話』 卷一.

13) 許筠, 『惺叟詩話』

은 漢이나 唐에만 있는 줄 알고 신라에 있는 줄은 모르며, 학식은 儒書나 佛典을 관통하였으나 본국의 『古記』 일편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 主義는 조선을 가져다가 純支那化하려는 짓뿐이고, 그 예술은 靑天으로 白日을 대하여 黃花로 綠竹을 대하는 사륙문에 능하였을 뿐이다.”<sup>14)</sup>하여 중국에 경도된 事大主義 문학가라 혹평하였다. 근래에 趙東一은 『韓國文學思想史試論』에서, 원효는 사상적 확신이 있었고 강수는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했는데, 최치원에게는 원효나 강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정신적 가난이 심각했지만,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조차 할 수 없었다.”<sup>15)</sup>라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일부 후세의 비평가들은, 최치원의 시문이 사륙문이기 때문에 괴이하고 난삽하며 중국의 고사만 인용하여 사대적 성격을 지녔으며 또한 사상적 확신도 없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 과연 과도한 故事의 인용으로 고운의 시가 난해한 시였는가를 작품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고운의 紀德詩 30首 중 28번째 <淮南>이다. 紀德詩는 고병의 덕을 기리기 위해 고운이 의도적으로 쓴 송축시이며 목적시이다.

八郡榮超陶太尉, 팔군의 영광은 도태위를 넘었고,  
三邊靜掩霍嫖姚. 삼변을 진정시킴은 광표요를 무색케 했네.  
玉皇終日留金鼎, 옥황께서 종일토록 금술을 그대로 두게 한 것은,  
應待淮王手自調. 회남왕이 손수 약 다리기를 기다린 것일세.<sup>16)</sup>

위의 시는 全句가 用事로 되어 있다. 용사를 이용함으로써 짧은 글구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함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따라서

14) 申采浩, 『朝鮮上古史』 上卷, 삼성문화문고, 1977, 66쪽.

15)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95, 53쪽.

16)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桂苑筆耕集』 卷十七, 104쪽, 참조.

용사의 방법에 익숙해야 그 묘미와 깊이를 드러낼 수 있다. 『四清詩話』에, “杜少陵云, 作詩用事, 要如禪家語, 水中着鹽, 飲水乃知鹽味.”(杜少陵이 이르기를, 시를 짓는 데 있어 用事는 모름지기 禪家語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물 속에 녹아 있는 소금은 물을 마시면 곧 그 소금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詩人玉屑』에 실려 있는 『四清詩話』의 내용으로, 用事를 할 경우에는 모름지기 ‘물 속에 녹아 있는 소금은 물을 마시면 곧 그 소금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用事를 행하는 데 있어 은밀하게 用事를 하여야 함을 밝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금을 물에 타 놓으면 소금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소금은 물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물을 마셔 보면 소금 맛을 알 수 있듯이, 用事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금물을 마셔 보기 전에는 소금이 녹아 있는 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듯이, 用事의 경우도 독자들이 보아 이 글이 用事를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끔 은근하고 은밀하게 用事를 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淮南은 고병이 절도사를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그의 공적을 드러내기에 적당한 고장이기도 하다. 起句의 ‘陶太尉’는 도연명의 증조부인 晉 나라의 陶侃(도간)이다. 그가 八州都督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일을 용사하여, 고병이 이미 진 나라 도간의 공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고 한 것이다. 承句의 ‘三邊’은 西戎·南蠻·東鄙 등으로 오랑캐를 이르는 말이다. 고병이 劍南·荊南·淮南의 절도사를 지냈는데, 서융·남만·동비에서 도적이 일어났으나 公이 모두 토벌한 일을 인용하였다. ‘霍嫖姚’(곽표요)는 人名을 용사한 예이다. 곽표요는 漢 나라 霍去病으로, 嫖姚校尉가 되어 흉노를 토벌한 장수이다. 따라서 고병은 서융·남만·동비를 이미 평정했기 때문에 곽표요의 무공을 능가했다는 것이다. 轉句

17) 魏慶之, 『詩人玉屑』 「用事」, 123쪽.

의 ‘玉皇’은 황제를 비유한 것이며 ‘金鼎’은 신선의 약을 달이는 솥이다. 結句의 ‘淮王’은, 漢 나라 淮南王 劉安을 지칭한다. 玉皇·‘淮王’ 모두 人名을 용사한 것이다. 옥황과 회남왕의 용사를 통해 이제는 신선의 경지까지 오른 고병임을 격찬하고 있다.

用事라 하면, 前代에 있었던 일 또는 前人の 말이나 글을 이끌어다가 자기의 논리적 근거를 보완하는 작법이라 하여, 그 대상이 반드시 전대의 일이나 전인의 말 혹은 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詩人玉屑』에 수록된 『東平雜錄』의 荊公이 <梅花賦>에서 ‘姑射’(고야)와 ‘玉眞’을 용사한 것을 이르기를, “兩句皆用古語, 但易一如字爾.”(두 구절 모두 古語를 사용했는데, 다만 한결같이 쉬운 字일 뿐이다.)<sup>18)</sup>라 한 것처럼, 여기서도 옥황과 회남왕 등 쉬운 글자로 용사하였으나 그 시적 의미는 깊다. 옥황께서 종일토록 金鼎을 둔 것은 회남왕이 仙藥을 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에 그를 믿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고운도, 선약을 만든 회왕과 같은 능력을 지닌 고병임을 용사의 방법으로 찬양하였다. 고병의 영웅적 면모를 칭송하되, 전대의 武官과 왕의 행적을 용사하였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만약 ‘도태위’·‘곽표요’·‘회남왕’ 등을 용사하지 않았다면, 고병의 무관과 문관으로서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김석주가 고운을 평가하기를, “千仞絶壁, 萬里洪濤.”(천길 낭떠러지요, 만리의 큰 물결이다.)<sup>19)</sup>라 하였으며, 김안국은 “崔李格高.”(최고운과 이목은의 시는 격이 높다.)<sup>20)</sup>라 한 것도, 고운의 용사와 관련이 있

18) 魏慶之, 『詩人玉屑』, 「用事」, 127~128쪽.

19) 任環, 『玄湖瑣談』

洪贊裕, 譯註『詩話叢林』(下), 通文館, 1993, 1170~1172쪽.

20) 尹根壽, 『月汀漫筆』, 『大東野乘』 卷五十七.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국역『대동야승』XIV, 1985, 321쪽.

을 것이다. 따라서 김석주·김안국의 논평에서처럼, 고운의 문학은 정절 한 용사와 대구로, 의미의 강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의 격이 높아졌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 제1구와 제2구의 대구로 고병의 용맹스런 행적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申緯는 『東人詩論』에서 “功高初祖始開山.”(開山の 시조로 공로가 높다.)<sup>21)</sup>이라 하였으며, 洪萬宗도 『小華詩評』에서 “之于唐 侍御史崔致遠 文體大備, 遂爲東方文學之祖.”(唐 侍御史 최치원에 이르러서 文體가 크게 갖추어져서 마침내 우리 나라 문학의 시조가 되었다.)<sup>22)</sup>라 하여, 신위·홍만종 모두 최치원을 우리 나라 한문학의 시조로 보았다. 따라서 후대의 일부 비평가들이 최치원의 문학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 Ⅲ. 『桂苑筆耕集』 所載 한시의 개관

#### 1. 한시의 개관 및 그 전반적 성격

『桂苑筆耕集』은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개인 文集이다. 20卷 4冊으로 되어 있으며, 唐으로부터 귀국한 뒤 高駘(고병)의 從事官이던 시절의 저작들과 귀국하는 과정에서 지은 것을 모아, 886년에 신라 헌강왕에게 바친 문집이다.

최치원의 한시는, 『桂苑筆耕集』 卷十七에 <七言紀德詩> 30首와, 『桂苑筆耕集』 卷二十에 칠언절구 15수, 오언율시 15수 등, 모두 60수가 전해진다. 이 밖에도 최치원의 한시가, 일본인 大江維時(883~963)가 唐詩에서 名聯을 뽑아 上·下卷으로 편찬한 사본인 『千載佳句』에 7수, 『三國史

21) 申緯, 『東人詩論』, 『白雲小說』三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

22) 洪萬宗, 『小華詩評』上, 『洪萬宗全集』, 太學社, 1982, 26~29쪽.

記』에 5수, 『白雲小說』에 1수 전해지며, 『東文選』에는 고운의 시작품이 29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桂苑筆耕集』에 전해지는 <陳情上太尉詩> · <酬楊瞻秀才送別> · <野燒> 등 중복되는 3수를 제외하면 26수가 실려 있다. 그리고 『海印寺古籍』에 6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2수, 『芝峯類說』에 遜世詩로命名된 孤雲의 시 8수, 『小華詩評』에 1수, 『孤雲先生文集』에 3수, 『海雲先生略選』에 1수, <孤雲先生銅像>에 1수, 『崔文昌侯全集』에 5수 등 총 126수가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韓國文集叢刊』, 1에 수록된 『桂苑筆耕集』所載 한시 60수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시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桂苑筆耕集』卷十七에는, 고운이 고병의 종사관이 되어 그의 덕을 기리면서 바친 시 「七言紀德詩三十首, 謹獻司從相公 이 있다. 그에 실린 30수는 모두 칠언절구의 형식이다. 現傳 고운의 한시 126수 중에는 절구가 81수이며, 그 중에서도 칠언절구가 70수에 이른다. 따라서 현전하는 전작품의 대부분이 칠언절구이므로, 고운의 特長은 絶句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絶句는 당 나라 시 중에도 가장 많으며 그 장르를 좋아 한 작가도 많다. 『唐代詩學』에서도 “七言絶句爲唐詩精華, 所以合管絃歌唱.”(칠언절구가 당시의 정화가 되니, 管絃歌唱에 합당한 까닭이었다.)<sup>23)</sup>이라 하였다. 管絃歌唱에 합당했다는 것은, 칠언절구가 시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 장르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紀德詩 30수는 고병의 德을 기리는 시로, 자신의 감정을 극진히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唐詩의 5언은 긴박한 리듬인 데 반해, 7언은 典雅한 느낌을 준다. 이런 이유에서 고운은, 7언의 절구로써 고병의 덕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桂苑筆耕集』卷二十에는, 고운의 한시 칠언절구 15수와 오언율시 15

23) 正中書局編 審委員會, 『唐代詩學』, 臺灣正中書局, 1973, 31쪽.

수가 전해지고 있다. 칠언절구로는 <奉和座主尙書避難過維陽寵示絕句三首> · <留別女道士> · <酬進士楊瞻送別> · <楚州張尙書水郭相迎因以詩謝> · <酬吳巒秀才惜別二絕句> · <和友人除夜見寄> · <東風> · <海邊春望> · <春曉閒望> · <海邊閒步> · <和金員外贈嶠山清上人> · <題海門蘭若柳> 등이 있다. 그리고 고운이 28세 되던 해(884)에, 당 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오는 과정에 눈이 보이는 광경을 시로 표현해 낸 景物詩 10수를 지었는데, 모두 5언 율시로 되어 있다. 그 10수 중 첫번째 작품명이 <石峯>인데, 그 제목 밑에 “中和甲辰年冬十月, 奉使東泛, 泊舟於大珠山下, 凡所入目, 命爲篇名, 嘯月吟風, 貯成十首, 寄高員外.”(중화 갑진년[회종 4년] 겨울 10월에 사신의 임무를 받들고 동쪽으로 배를 띄웠다. 대주산 아래에 배를 정박하여, 무릇 눈에 보이는 광경을 篇名이 되게命하여 음풍소월하여 10수가 이루어져 쌓였으니, 高員外에게 부친다.)<sup>24)</sup>라 하여, 그 창작 시기와 배경을 밝혀 놓았다. 그 외 5언 율시로 <陳情上太尉詩> · <歸燕吟獻太尉> · <酬楊瞻秀才送別> · <行次山陽, 續蒙太尉寄賜衣段, 令充歸覲續壽信物, 謹以詩謝> · <將歸海東嶠山春望> 등의 5수가 전해지고 있다. <陳情上太尉詩> · <歸燕吟獻太尉> · <行次山陽, 續蒙太尉寄賜衣段, 令充歸覲續壽信物, 謹以詩謝> 등은, 求官을 위한 끊임없는 번민과 노력 그리고 자기를 등용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시들이다.

<酬楊瞻秀才送別>에서는 당 나라를 떠나는 아쉬움을, <將歸海東嶠山春望>에서는 고국에 돌아가는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桂苑筆耕集』 所載의 한시는, 당 나라에서 은혜를 입은 고병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는 紀德詩 30수와 눈이 보이는 광경을 음풍소월한 경물시 10수 그리고 고병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 이별의 슬픔과 귀향의

24)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桂苑筆耕集』 卷二十, 126쪽, 참조.

기쁨 등을 노래한 시들이 실려 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2. 한시의 소재와 주제

최치원이 고병에게서 諸道行營都統이라는 관직을 얻게 되어 그의 종사관이 되었다. 異國 땅에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海外人을 보살피는 것에 대하여, 고운은 <七言紀德詩三十首, 謹獻司從相公><sup>25)</sup>이라는 시를 지어 그의 德을 기렸다. 이는 고운시의 한 특징으로, 소재 및 주제로 볼 때 그 성격이 목적시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紀德詩 30首에서, 고운은 고병의 일대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고려 시대에 이규보가 지은 영웅서사시 <동명왕편>을 연상하게 한다.

紀德詩의 第1首는 <兵機>이다.

惟將志業練春秋, 오직 큰 뜻을 품고서 춘추를 세련하고,  
 早蓄雄心剗國讎. 일찍이 큰 마음을 축적하여 나라의 원수를 물리쳤네.  
 二十年來天下事, 20년 이래 천하의 일은,  
 漢皇高枕倚留侯. 한 고조가 장량에 의해 걱정 없던 것과 같네.

<兵機>는 紀德詩의 序文에 해당되는 시이다. 고병의 큰 뜻은 유교적 가치관이었음을 『춘추』를 통해 드러내면서, 이제는 나라의 원수를 다 물리쳐 태평성대가 왔음을 말하며 한 고조와 장량의 일을 用事하여 고병의 德을 칭송하였다.

第2首는 <筆法>으로, “見說書窓暫臥龍, 神傳妙訣助奇鋒.”(선비 방의 말씀을 보니 잠시 용이 누워 있는 듯, 신이 기묘한 비결을 전하여 기이한

25)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桂苑筆耕集』 卷十七, 102쪽, 참조.

필봉을 도왔다.)이라 하여, 고병의 筆才를 격찬한 것이다.

第3首는 <性箴>으로, “波澄性海見深源, 理究希夷闢道門.”(性海에 물결 맑아 깊은 근원을 보았고, 希夷[道體]를 궁리하고 연구하여 진리의 문을 열으셨네.)라 하여, 道體를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병의 덕을 기리고 있다. ‘希夷’는, 『노자』 제14장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夷’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은 ‘希’라 한다.)<sup>26)</sup>를 용사한 것이다.

第4首 <雪詠>는, 고병의 <雪詩>에 화답한 시이다.

五色毫編六出花, 오색의 터럭으로 육출화[눈]를 엮어내어,  
三冬吟徹四方誇. 三冬에 읊조리니 사방에서 자랑하네.  
始知絕句勝聯句, 비로소 절구가 연구보다 나음을 알았으니,  
從此芳名掩謝家. 이로부터 꽃다운 이름 謝家를 덮었다네.

위의 시는 고병의 文才가 뛰어났음을 찬양한 것이다. 고병의 7언절구인 <雪詩><sup>27)</sup>가 晉 나라 謝道韞의 “柳絮因風起.”(버들꽃이 바람따라 나부끼네.)라는 聯句보다 낫다고 격찬한 것이다. ‘五色毫’·‘三冬’·‘四方’등을 통하여, ‘六出花’가 눈임을 드러냈다. 고운의 시어 구사의 능력이 돋보이게 하는 시이다.

第5首는 <射鵬>(석조)로, 고병이 문무를 겸비했음을 활숨씨로 보여 준

26) 『노자』 제14장.

27) 『唐詩紀事』卷 第六十三, 張十五, 鼎文書局版, 1978, 983쪽.

<雪詩>

六出花飄入戶時, 눈발이 나부끼며 문틈으로 들어올 때,  
立看修竹變瓊枝. 서서 긴 대나무가 구슬 가지로 변함을 보았네.  
逡巡上好高樓看, 천천히 즐겨 높은 누각 위로 올라가 보니,  
蓋盡人間惡路歧. 인간의 악한 갈림길 다 덮었네.

시이다.

能將一箭落雙鷗, 능히 장차 한 화살로써 두 마리의 독수리를 떨어뜨리니,  
萬里胡塵當日鎖. 만리 호랑개의 티끌이 그 날로 사라지네.  
永使威名振沙漠, 영원히 위엄 있는 이름 사막에 떨쳤으니,  
犬戎無復吠唐堯. 오랑캐들 다시는 당요를 못 짓으리.

위의 시에서는, 고병이 한 화살로 두 마리 독수리를 맞힐 수 있었다고 하여, 그 위엄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활숨씨에 얽힌 일화는 <射虎>(석호)·<射鞭>(석편) 등에도 소개되고 있다. <射鷗>에서처럼 고병의 영웅적 위용이 천하에 떨치니 만리 밖의 오랑캐도 사라질 정도였다. 따라서 요 임금에 다스리던 태평성대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병과 같은 비범한 인물의 행위가 조선시대의 영웅서사시인 <용비어천가> 제 7장에도 나온다. 度祖[이성계의 조부]가 야영을 하고 있을 때 나뭇가지에 앉은 두 마리의 까치를 한 화살로 명중시켰다는 내용이다. 이는 <射鷗>와 유사한 내용이다. 따라서 최치원의 紀德詩 30수는 후대의 목적시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30수 전편을 읽어 보면 고병의 일대기를 그린 영웅 서사시를 읽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차례로 절도사를 歷任한 지역이 곧 시 작품명 <安化>·<秦城>·<安南>·<天平>·<西川>·<荊南>·<潛運>·<淮南> 등으로 제시되어 고병이 절도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세운 武功을 기록하여 칭송되고 있다.

<生祠>에서는, 고병의 生祠堂을 세운 사실을 “萬代聖朝青史上, 獨傳溪洞立生祠.”(만대 성조 청사 위에, 유독 계동에 <고병의> 生祠를 세웠다고 전하네.)라 하여, 업적을 기리고 있다.

<築城>에서도 “一心能感象心齊, 鐵甕高吞劍閣低. 多上散花樓上望, 江山供盡好詩題.”(한 마음이 능히 <못 사람>을 감동시켜 험심케 했으니,

철옹 같이 높은 것도 <안중에 두지 않고> 검각산이 높지 않네. 산회루 위에 자주 올라 바라보니,江山 끝난 곳에 시제도 좋구나.)라 하여, 한가로운 情景을 그리고 있다. <收城碑>에서는, 用事를 이용하여 武官으로서의 고병의 功勳을 칭송하였다.

功業已標征北賊,	공적과 업적이 이미 <정복부>에 표시되었고,
威名初建鎮南碑.	위엄 있는 명성은 처음으로 '진남비'를 세웠네.
終知不朽齊銅柱,	마침내 '동주'와 같이 썩지 않음을 알거든,
況是儒宗綴色絲.	하물며 '유종'이 絶妙好絲를 엮었음에라.

위의 시는 '征北賦'·'鎮南碑'·'銅柱'·'儒宗'·'色絲' 등을 용사한 경우이다. 그리고 1, 2구에서의 대구 또한 잘 구성되어, 그의 뛰어난 업적이 잘 전달되고 있다. '征北賦'는 고병이 北方을 征伐하고 <정복부>를 지은 사실을 用事한 경우이고, '鎮南碑'는 晉 나라 杜預가 荊州에서 鎮南將軍으로 功을 세운 일을 말한 것이며, '銅柱'는 후한 馬援이 交趾를 정벌하고 국경 표시로 세운 구리 기둥을 말한 것이다. '儒宗'은 유학의 으뜸이란 뜻으로, 비문을 지은 度支 裴撲(도지 배박)을 가리키며, '色絲'는 楊修가 曹娥碑를 보고 曹操에게 풀이한 絶妙하다는 글구의 풀이를 용사하였다.<sup>28)</sup> 이처럼 한시 전체가 용사로 되어 있어, 典故의 내용을 알기 어려워도 난삽하고 괴이하다고 평할 만하다. 그런데 <收城碑>에서의 用事의 활용은 적재적소에서 善用됨으로써 고병의 武勳이 잘 드러나고 있어, 鄭克後가 『西岳誌』에서 “生乎東國, 而其文章事業, 至於馳駕中原, 曠曜後世者, 千古一人而已.”(동국에 태어나서 그 문장과 사업이 중국을 휩쓸고 후세에 그 이름을 빛낸 이는, 천고에 고운 한 사람뿐이다.)<sup>29)</sup>라고 한 것처럼,

28) 金重烈, 「崔致遠 文學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83, 152쪽.

29) 鄭克後, 『西岳誌』, 서울대학교 奎章閣所藏, 木版本.

그런 평을 해도 조금의 손색이 없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공을 전대의 일로써 용사하였기에, 그 의미 전달은 더욱 분명히 강조될 수 있었다.

주세붕<sup>30)</sup>·고승 유일<sup>31)</sup>·신위<sup>32)</sup> 등은, 고운이 우리 나라 문학의 시조라고 격찬하였다. 또한 고승 유일은 “或以專尙駢儷，體格卑弱，無韓柳之雄渾詭奇，少之，余曰 <韓柳之優於先生固是，先生之此格，韓柳不若也.>”(혹 변려만을 숭상한 나머지 문체와 격조가 비천하고 연약하며, 韓愈나 柳宗元의 글처럼 雄渾함과 詭奇함이 없다고 적게 여기기도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韓·柳가 선생보다 우월하다 함은 진실로 옳은 말이나, 선생의 이 격조는 韓·柳도 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겠다.)<sup>33)</sup>라 하여, 고운의 문체를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고승 유일의 논평대로, 東國文章의 首倡으로서의 고운만의 독특한 문체가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고려 후기에 이규보는, 최치원의 시가 “其詩不甚高，豈其入中國，在於晚唐後歟.”(그의 시는 크게 빼어나지 못하니, 어찌 그가 중국에 들어간 때가 만당의 뒤였기 때문인가?)<sup>34)</sup>라 하고, 조선 초에 성현은, “雖能詩句而意不精，雖工四六而語不整.”(비록 시구에는 능숙하였으나 뜻이 알차지

30) 周世鵬, 『游清涼山錄』, 『崔文昌侯全集』, 428쪽.

“遂爲東方文學之祖”

31) 釋 有一, 『四山碑錄序』.

崔英成, 『崔致遠 全集』 ①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8, 48~52쪽.

“先生爲東國文章之首倡”

32) 申緯, 『東人詩論』, “功高初祖始開山.”

33) 釋 有一, 『四山碑錄序』.

崔英成, 『崔致遠 全集』 ①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8, 52쪽.

34) 洪萬宗, 『詩話叢林』3.

洪贊裕, 譯註『詩話叢林』(上)3, 通文館, 1993, 9~10쪽.

못하고, 비록 四六文體에는 공교로움이 있었으나 시어가 정리되지 못하였다.)<sup>35)</sup>라 하였으며, 허균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淺薄하고 深厚하지 않다.”<sup>36)</sup>라고도 하였으며, 그리고 “文菲以萎, 詩粗以弱, 使在許鄭間, 亦形其醜, 乃欲使盛唐爭其功耶.(文은 시들고 말라 얽으며, 詩는 나약하고 거칠어 許渾과 鄭谷 사이에 두게 하더라도 또한 그 초라함이 드러나거늘, 이에 성당의 시인들과 하여금 功을 경쟁하게 하고자 하나 할 수 있겠는가?)<sup>37)</sup>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先代 비평가들의 이런 논평은 아마도 정절한 用事를 통해 新意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었음을 간과한 상태에서 나온 비평이라 할 수 있다.

고운이 유학한 시기가 晚唐이고 그의 문체가 사륙변려문이기 때문에 시어가 빼어나지 못하고 뜻도 알차지 못하며 淺薄하고 深厚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부정적인 논평은 고운이 행한 用事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김일손<sup>38)</sup>·조위<sup>39)</sup>·윤노현<sup>40)</sup>·박제가<sup>41)</sup>·홍만중<sup>42)</sup> 등은 고운의 문장과 시를 높이 평

35) 成俔, 『慵齋叢話』 卷之一, 『大東野乘』 卷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국역『대동야승』 I, 1985, 10쪽.

36) 許筠, 『惺叟詩話』 참조.

洪贊裕, 譯註『詩話叢林』(下), 通文館, 1993, 768쪽.

37) 許筠, 『惺所覆瓿稿』 卷十.

38) 金駟孫, 『遊頭流錄』, 『崔文昌侯全集』, 427~428쪽.

“使孤雲生於今日 亦必居可爲之地 摘華國之文 賁飾太平 某得以奉筆硯於門下矣.”

39) 曹偉, 『東史纂要』, 『崔文昌侯全集』, 141쪽.

“曹偉曰 或者疑其以孤雲大才 卷而東歸 陳力就列 遇事匡救 彌縫其闕失 粉飾其文治 則國勢不至於捏危 萱裔何遽於猖獗.”

40) 尹耆獻, 『混定編錄』 9, 『大東野乘』, 卷七十.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국역『대동야승』 XVII, 1985, 115쪽.

“先聖先師享廟宮之專祀 後儒之有功斯文者 例得從食於兩廡 其在我東 於羅則有若崔致遠薛聰.”

41) 朴齊家, 『北學議』, 大洋書籍, 1972, 281~282쪽.

가했기 때문이다. 고려 말이나 조선 초만 해도 典故의 활용에 관한 유래처의 확인은, 대부분 비평가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였다. 변려문으로써 과거 시험에 합격한 고운의 典故 활용의 장점을 모두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서적 보급화에 미루어 보아도, 당 나라에서 살았고 변려문으로 당 나라 과거 시험을 준비한 고운의 독서의 범위를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문인들이 따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平蠻>·<練兵>·<天威徑>·<崖口徑>·<相印>·<降寇>·<浙書> 등은, 고병이 南蠻北狄을 몰아내고 군대를 사열하였다는 내용과, 도적의 무리는 고병의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졌으며 백성들은 상공의 명성만 듣고도 기뻐했다는 내용들의 작품이다. <朝上清>에서는 “天上香風吹楚澤, 江南北鎮成春.”(천상의 향기로운 바람은 초 나라의 연못에서 불고, 강남 강북은 길이 봄을 이루리.)이라 하여, 태평천하가 길이 지속될 것을 기원하였다. 紀德詩의 마지막首인 <陳情>은, 고운이 紀德詩를 지은 까닭을 구체적으로 밝힌 시편이다.

俗眼難窺冰雪姿,	세속의 눈으로는 막고야 선녀를 알아볼 수 없는데,
終朝共詠小山詞.	아침이 다할 때까지 小山詞를 함께 읊조렸네.
此身依托同雞犬,	이 몸 의탁함이 닭이나 개와 같으니,
他日昇天莫棄遺.	다른 날 승천하시더라도 버리지 마소서.

위의 <陳情>은, 고운이 타국에서 立身을 위해 얼마나 번민을 많이 했는가를 느끼게 하는 시이다. 3, 4구에서는 자신을 닭과 개에 비유하여 용

“余幼時慕崔孤雲(致遠)趙重峰(憲)之爲人 慨然有異世執鞭之願 孤雲爲唐進士東還本國 思有以革新羅之俗 而進乎中國一時不競隱居伽倻山不知所終.”

42) 洪萬宗, 『小華詩評』(上), 5쪽,

安大會 譯註, 對校譯註『小華詩評』, 國學資料院, 1995, 79~80쪽.

“辭極古雅 非後世人可及.”

사하고 있다. 淮南 厲王 劉安이 仙藥을 만들어 먹고 白日昇天하였는데, 그릇에 남겨진 선약을 먹은 닭과 개가 모두 하늘로 올라갔다는 故事를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고운은, 고병이 자신을 계속 등용해 주기를 용사를 통해 기원하였다. ‘冰雪姿’는 『莊子』, 『逍遙遊』에 나오는 藐姑射(막고야)의 故事를 용사한 것이다. 魏慶之가 편찬한 『詩人玉屑』의 『用事』篇에서 「皆用古語」를 보면, <荊公의 <梅花賦>에 이르기를, “얼음같이 피부가 작약함[곱고 고운]이 마치 姑射와 같구나. 눈 같은 피부가 들쭉날쭉함 바로 玉眞이로구나.”라고 하였으며, 莊子가 말하기를, “藐姑射山에는 신이 살고 있는데, 피부가 마치 얼음과 눈 같아서 작약함이 마치 處子와 같다.” 하였으며, 白樂天은 <長恨歌>에서 이르기를,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字는 玉眞이니, 눈과 같은 피부 꽃 같은 모습 어긋나고 어긋난 바로 그 사람이다.” 하였는데, 두 구절 모두 古語를 사용했으나, 다만 한결 같이 쉬운 字일 뿐이다.><sup>43)</sup>라고 한 내용이 있다. 여기서는 ‘姑射’와 ‘玉眞’이 古語에 해당된다. 이처럼 『詩人玉屑』에서도 古語가 用事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운도 자기 시에서 古語를 용사하여 새로운 의미를 더 하였다. 위경지는, 古語를 인용함에 어려운 글자보다는 쉬운 글자로 하기를 권했던 것이다. 『詩人玉屑』의 내용처럼, 고운도 藐姑射(막고야)라는 쉬운 글자들로 용사하여 고병을 비유하였다.

紀德詩 30首는, 고병의 일대기를 압축해 놓은 듯한 시이다.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내세관을 지닌 고병이 詩·書·射 등 文武를 겸비한 인물임을 드러냈으며, 그런 인물에게 고운 자신이 의탁해야 하는 당위성을 드러냈다. 고운의 紀德詩 30首는, 후대의 목적시의 본보기가 되었다.

43) 魏慶之, 『詩人玉屑』, 「用事」, ‘皆用古語’, 127~128쪽.

“荊公賦梅花云, 肌冰綽約如姑射, 膚雪參差是玉眞, 莊子曰, 藐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 綽約若處子, 樂天長恨歌曰, 中有一人字玉眞, 雪膚花貌參差是, 兩句皆用古語, 但易一如字爾.”(東平雜錄)

고려 시대 이규보가 지은 <東明王篇>은 5언 28구로 이루어진 장편 영웅 서사시이다. <東明王篇>은,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동명왕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규보가 재창조한 작품으로, 동명왕의 탄생 이전의 계보를 밝힌 序章과 동명왕의 출생에서부터 건국의 성업을 이루기까지를 묘사한 本章, 그리고 후계자 유리왕의 경력을 다룬 終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紀德詩 30首는, <東明王篇>의 본장 곧 동명왕의 성업을 이룬 내용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도,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하여 송축한 목적시였다. 紀德詩는, 각 首마다 前 1·2구에서 그의 뛰어난 행적을 제시하고, 後 3·4구에서는 故事를 인용하여 그의 덕을 찬양한 작품이다. <용비어천가>의 구조도 전절 2구체와 후절 2구체로 되어 있다. 전절은 중국의 고사를 전제로 제시하였으며, 후절은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신라 말의 최치원의 紀德詩 30首는 그런 목적시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桂苑筆耕集』卷二十<sup>44)</sup>에는, 고운의 한시 중 칠언절구와 오언율시 각각 15首씩 30首가 전해지고 있다. 먼저 그 칠언절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奉和座主尙書避難過維陽寵示絕三首>는, 좌주상서 배찬의 난을 피해 가던 중 유양에 들렀을 때 절구 세 수를 사랑스러이 보여주기에 받들어 화답한 시로, 고운의 유가적 면모를 드러냈다. “年年荊棘侵儒苑.”(해마다 유원은 가시만 침투하니.)이라 하여, 황소의 난 때문에 유교적 가치관이 실현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酬吳巒秀才惜別絕句>는 수재 ‘오만’의 송별시에 대하여 답한 시로, 이별가이다. <酬進士楊瞻送別>도 진사 양섬의 송별시에 답한 시이다. 12

44)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1, 『桂苑筆耕集』卷二十, 127쪽, 참조.

살에 당 나라에 유학을 간 고운이 18년이 지난 후 귀국 길에 올랐는데, 그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乳山에 이르러 10여일간 풍랑이 멎기를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曲浦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다. <東風>·<海邊春望>·<春曉間望>·<海邊間步> 그리고 5언 율시 <將歸海東嶠山春望> 등은, 곡포에서 겨울을 나면서 고향을 그리워한 시이다. 그 중 <海邊間步>를 살펴보자.

潮波靜退步登沙, 조수 물결이 물러난 뒤 모래사장 걸노라니,  
落日山頭簇暮霞. 해 지는 산마루에 저녁노을 깔렸네.  
春色不應長惱我, 봄빛이 내 마음 사뭇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니,  
看看卽醉故園花. 보는 것마다 곧 고향의 꽃동산 취할 테니.

위의 시에서는 고운의 적막감과 한가로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18년 동안 그리워한 고국 땅을 한시바삐 밟고 싶지만, 풍랑으로 인한 현실적 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봄이 되면 고향의 꽃동산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적막감은 한가로움으로 견디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桂苑筆耕集』卷二十에는 자연과 물상을 그린 景物詩[詠物詩]가 있다. 당 나라에서 사신의 임무를 띠고 대주산 밑에 배를 정박해 놓고 눈에 보이는 광경을 시로 풍월한 것으로, <石峯>·<潮浪>·<沙汀>·<野燒>·<杜鵑>·<海鷗>·<山頂危石>·<石上矮松>·<紅葉樹>·<石上流泉> 등 10편이 있다. 이 경물시에서도 용사를 많이 행하여 시적 의미를 더욱 깊게 하였다. 그 중 <石上矮松>을 살펴보자.

不材終得老煙霞, 재목감이 못되어 자연에서 천수를 누렸네,  
澗底何如在海涯. 시냇가가 어찌 바닷가만 하겠는가?  
日引暮音齊島樹, 해는 저녁 구름을 끌어다가 섬 나무와 가지런히 하고,

風敲夜子落潮沙. 바람은 솔방울을 흔들어 물가 모래밭에 떨어뜨리네.  
 自能盤石根長固, 스스로 능히 반석에 내린 뿌리 길고 단단하니,  
 豈恨凌雲路尙賒. 어찌 구름을 능가할 길 오히려 멀다 한하겠는가?  
 邈訝低顏無所愧, 키 작은 것은 부끄러워할 바가 아니니,  
 棟樑堪入晏嬰家. 안영의 집 들보감으로는 넉넉하다네.

위의 시에서는, 시냇가 바위 위에 뿌리 내린 키 작은 소나무를 고운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해 놓았다. 곱어 재목감이 못되는 초라한 자신이 바닷가 당 나라에 유학하여, 이제는 당당히 대들보가 되어 고국에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변했음을 그리고 있다.

두려운 ‘不材終得老煙霞’는 『莊子』의 「山木」에 나오는 故事이다. 장자가 산속을 지나가다가 큰 나무의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았는데, 나무 베는 자가 그 곁에서 있으면서 취하지 않아 그 까닭을 물었더니, “가히 쓸 만한 곳이 없어서입니다.” 하였다. 장자가 다시 말하기를 “이 나무는 재목이 못되기 때문에 그 하늘이 준 나이를 마칠 수 있구나.”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용사한 것이다. 이제현 또한 『櫟翁稗說』(특옹패설)<sup>45)</sup>이라는 책의 명칭을, 재목감이 못되어서 베어지는 피해를 멀리할 수 있어 나무로서는 즐거워할 일이라 하면서, 자신이 櫟翁으로 재목감이 못되지만 능히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시냇가의 바위 위 키 작은 소나무는 동쪽 끝자락 신라에 태어난 자신이며, 바다는 신라의 영토보다 큰 당 나라이다. 재목감은 못되어도 더 큰 이상의 실현을 위해 시냇가가 아닌 바다를 구경했던 고운이, 자신의 포부를 바위 위 키 작은 소나무를 통해 드러냈다.

45) 鄭堯一 교수는 『櫟翁稗說』(특옹패설)의 품을 근래에 ‘역옹패설’로 또는 ‘낙옹비설’로 잘못 읽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櫟’은 상수리 나무 ‘특’이다.

鄭堯一, 「文學 本質論類 用語로서의 ‘意’와 ‘氣’의 概念」, 『仁荷語文研究』 第6號, 2003, 510쪽.

함련에서는, 키 작은 소나무가 처한 환경적 요인이 설명되고, 바람부는 황혼녘 솔방울의 씨앗처럼 암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의식을 잉태하는 고운의 모습이 투영되었다. 경련에서는, 비록 키는 작지만 반석 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려 구름까지 능가할 자신감으로 가득찼다. 미련에서는, 작은 땅에 뿌리 내린 키 작은 소나무가 키 작음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왜냐하면, 대들보로 쓰이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棟樑堪入晏嬰家”는, 안영의 故事를 용사한 것이다. 『史記』卷六十二「관중·안자열전 의 안영에 대한 이야기로, “제 나라 재상이었던 안영은 키가 6척도 안 되었으나 재상 노릇을 하였으며, 그의 머부는 8척이나 되고도 머부 노릇하고 살았다.”는 말을 쓴 것이다. 고운 자신이 반석 위 키 작은 소나무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다 이겨 내고 안영처럼 한 나라를 이끌어 갈 재상이 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다.

<陳情上太尉詩>는, 求官의 이유와 仕官의 소신을 밝힌 대표적인 시로, 고병을 만나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해결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시이다. <歸燕吟獻太尉>는, 秋社日에 갔다가 春社日에 돌아오는 제비의 信義를 통해, 자신도 비록 신라로 돌아가지만 제비처럼 신의를 지킬 것을 다짐한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름다운 들보를 내어준 은혜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향수에 앞서 은혜 받음에 감사한 것이다.

『桂苑筆耕集』에 실린 한시 60首의 소재는 다양하다. 紀德詩 30수는, 兵·射·城·관찰사를 지냈던 地名 등으로 고병의 무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과, 詩·筆·風流·祠堂·家門·文才 등 문관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들이다. 『桂苑筆耕集』卷二十에는, 倂난·여도사·송별 등, 재당 시절의 일상사를 드러낸 소재가 그 일부이며, 바람·해변·세상사·봄 등, 향수를 유발시킨 소재들이 있다. 그리고 돌봉우리·과도·모래밭·쥐불놀이·두견새·갈매기·산위 위태로운 바위·키 작은

소나무·단풍잎 등은, 경물시의 소재가 된 것들이다.

이 소재들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주제는, 고병의 영웅적 행적을 예찬한 목적시라고 할 紀德詩 30首와, 타국에서의 뿌리 내리기 위한 求官의 모습, 18년 동안 타향살이 한 결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귀국길에서 느끼는 귀향의 즐거움, 그리고 사물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경물의 묘사 등이었다. 경물시에서는 특히, 어려운 현실을 꺾듯하게 극복한 고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 IV. 前代 문학사상의 계승과 한시 작법의 학습

##### 1. 前代 문학사상의 계승

최치원이 前代의 문학사상을 어떻게 계승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桂苑筆耕集』所載 한시 작품 중에서 어떤 사상과 典故들이 거론되었는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적시로 분류될 수 있는 紀德詩 30수 중 첫째 작품 <兵機>에는, “惟將志業練春秋.”(오직 큰 뜻을 품고 춘추를 세련했네.)라 하여, 공자의 『春秋』를 거론하였다. 그리고 “漢皇高枕倚留侯.”(한 고조가 장량에 의해 걱정 없는 것과 같네)라고 하여, 漢 高祖를 도운 장량을 고병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도교에서는 武를 숭상하였는데, 역대의 武將 가운데 도교 신봉자가 많았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 고조를 도운 장량을 들 수 있다. 고운은 도교의 신봉자이면서 武將이었던 고병을 장량에게 비유한 것이다. 또한 고운은 『桂苑筆耕集』 卷十八, 「獻生日物狀 又狀」에서, “太尉相公, 漢師仙格”(태위상공[고병]께서는 한사[장량]의 신선 같은 격조이다.)<sup>46)</sup>라

46)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1, 『桂苑筆耕集』 卷十八, 112쪽 참조.

고 하였다. <性箴>에서는, “波澄性海見深源, 理究希夷關道門.”(性海에 물결 맑아 깊은 근원을 보았고, 希夷[道體]를 궁리하고 연구하여 진리의 문을 열으셨네.)라 하여, 『周易』, 『說卦傳』의 “窮理盡性, 以至於命”을 용사하였다. <收城碑>에서는 “況是儒宗綴色絲.”(하물며 ‘유종’이 絶妙好辭를 엮었음에랴.)라 하여, 유교가 으뜸임을 드러냈다. <淮南>에서는 ‘玉皇’과 ‘淮王’이라는 시어를 통해 도교 사상에까지 조예가 깊었음을 칭송하였다. <陳情>에서도 고병을 藐姑射山의 신선에 비유하였는데, ‘小山詞’는 중국 한 나라 때 회남왕 유안이 服食求仙하다가 方士를 만나 승천하자 회남의 小山之徒가 회남왕을 그리워하여 ‘淮南王歌’를 지어 부른 것을 이른다. 藐姑射山의 신선과 ‘小山詞’는 모두 도교 사상이 반영된 시어들이다. 이처럼 紀德詩 30수에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고운은 前代의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桂苑筆耕集』 卷二十 소재의 한시에 반영된 사상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奉和座主尙書避難過維陽寵示> 絶三首의 “年年荊棘侵儒苑, 處處烟塵滿戰場. 豈料今朝觀宣父, 豁開凡眼賭文章.”(해마다 유원은 가시만 침투하니, 곳곳 싸움터엔 연기와 먼지 가득. 오늘 아침 선보[孔子]께 절을 드리고, 그 문장에 좁은 안목 넓힐 줄이야.)이라는 시구에서는, 여러 해에 걸친 황소의 난으로 국정이 혼란하여 유학이 이미 황폐화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宣父(선보)의 문장으로 좁은 안목을 넓혔다고 한 것을 보면,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論語』에 의해 식견이 넓혀졌음을 알게 한다.

<留別女道士>에는 도교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제1구에 “數年深喜識麻姑”(마고님을 알고부터 수년 동안 몹시 기뻐다.)라 하여, 도교적 존재 마고를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마고는 여도사로, 당시에 성행한 도교적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당 나라의 황실은 도교의 시조인 老子 李聃을 자기 조상으로 존중하여, 황실 내에 그의 사당까지 세우기도 하였다. 황실이

도교를 신봉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당의 역대 황제들의 長生不老의 미신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서민들에게 확산되어, 入山해 도교를 믿는 풍조가 만연되었으며, 간혹 道士들 중에서는 卿相으로 발탁되기도 하였으니, 그 열풍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도교의 道觀이 당 나라 당시에 1687개<sup>47)</sup>였다고 하니, 이미 도사와 여도사는 특수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제4구에 “海水何時得盡枯”(바닷물은 어느 때 다 마를까요?)라고 한 것은, 마고 선녀의 이야기를 용사한 것이다. 葛洪의 『神仙傳』에 <王子平이 蔡經의 집에 강림하여 마고선녀를 불러왔는데, 마고선녀가 말하기를 “제가 이미 푸른 바다가 세번이나 뿅나무말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蓬萊에 와 보니 바닷물이 또 얕아졌더이다.>라고 한 것을 고운이 <留別女道士>에서 용사한 것으로, 여기서는 여도사에게 세상이 언제쯤 평정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운이 당 나라를 떠나면서 평화스러운 세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도교적 사상에서 바란 것이다.

<行次山陽, 續蒙太尉寄賜衣段, 令充歸觀續壽信物, 謹以詩謝>는, 고운이 귀국을 앞둔 상황에서 고병이 錦衣還鄉을 축하해 준데 대한 답시이다. 고운이 지금 중국을 떠나가지만, 태위[고병] 계시는 당 나라가 三仙山 같은 이상 세계로 그리워질 것이라고 하면서, 당 나라를 도교적 이상 세계로 미화하고 있다.

<石上矮松>에는 『莊子』, 山木 의 ‘材與不材’ 고사를, <海鷗>에는 『莊子』, 『齊物論』의 蝴蝶之夢 고사를 용사하였다. 그리고 또 <石上矮松>에는 안영의 고사도 용사하였다. 그리고 또 <山頂危石>에는 ‘和氏璧’의 고사를 용사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현실을 寓意의으로 표현하였다. ‘和氏璧’의 고사는, 전국시대 楚 나라의 和氏가 발견한 구슬에 관한 이야기이다. 구슬이 勵王에게 바쳐졌으나, 玉人이 돌로 감정하여 원발을

47) 『唐六典』 卷四.

잘랐으며, 여왕이 죽고 武王이 즉위하자 다시 바쳐졌으나 이번에는 오른발을 잘랐다. 무왕이 죽고 文王이 즉위하자 그 옥덩어리를 안고서 초산 아래에서 사흘 밤낮을 우니, 문왕이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정말로 참된 선비의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이 안타까워서 운다.”고 하니, 문왕이 이에 옥공을 시켜 그 옥덩어리를 다듬게 하여 和氏璧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sup>48)</sup>

<潮浪>에서도 “因思宗愨長風語，壯氣橫生憶臥龍”(종각의 거센 바람을 타겠다는 말을 생각하니, 장한 기운이 멋대로 일어 제갈량을 추억하네.)이라 하여, 종각의 고사와 人名 제갈량을 용사하고 있다. 종각은 南朝 시대 사람으로, 어렸을 때 숙부가 포부를 묻자, “거센 바람을 몰아 만리의 물결을 휘젓겠다.”고 한 인물이다. 고운 자신도 종각처럼 큰 포부를 떨칠 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제갈량의 경우처럼 자신의 꿈이 원대함을 밝혔다.

『桂苑筆耕集』卷二十 所載의 한시에는 도교 사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고사가 인용되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자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상투를 대들보에 걸어 매고 송곳으로 무릎을 찢러 가며 조금도 겨를이 없었다.”<sup>49)</sup>고 술회한 최치원의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나라 과거 시험이 변려문으로, 典故의 활용이 필수적이었다. 고운은 이런 현실적 이유로써 전고의 습득을 공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재당 시절의 공부의 한 특징적 면모가 그의 한시에 반영된 것이다.

이제 『桂苑筆耕集』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前代 문학사상의 계승적 측면을 정리하자면 우선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 등 종교적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와 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는 전통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받

48) 『十八史略』, 『春秋戰國』, ‘藺相如’에도 和氏璧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

49)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校印桂苑筆耕集序』, 5쪽 참조.

“懸刺無違.”

회하여 영웅적 인물을 예찬하고 칭송함으로써 평화로운 國泰民安의 평화로운 정치 현실을 작가적 이상 세계로 제시한 점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典故를 활용하는 用事으로써 문학 작품의 사상적 깊이와 내용적 충실성을 갖출 수 있다는 문학 사상을 터득한 점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 2. 前代 한시 작법의 학습

典故의 활용과 聲律을 중시하는 작시 풍조는 唐代에 李賀(790~816)에서 비롯되어 李商隱(812~858)에 이르러 집대성되기에 이르렀다.<sup>50)</sup> 고운의 典故 활용의 詩法 또한 이들로부터 문학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의 작품 비교를 통하여 그 영향 관계를 검토하기로 하자.

李賀의 <古悠悠行>에는 “海沙變成石, 魚沫吹秦橋. 空光遠流浪, 銅柱從年消.”(바닷모래 변하여 돌이 되고, 始皇이 다리 놓은 곳도 변하여 물고기가 살아 가네. 허공처럼 무한한 광음이 물결 따라 아득히 흘러가면, 銅柱도 해를 따라 삭아 없어지리.)<sup>51)</sup>라 하여, 桑田碧海의 의미와 銅柱의 고사가 인용되었다. 고운의 <留別女道士>에서도, 마고선녀의 이야기를 통해 桑田碧海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收城碑>에서는, 후한 馬援이 交趾를 정벌하고 국경 표시로 세운 구리 기둥 銅柱를 용사하였다. 이하는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동주도 삭아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고운은 오히려 <동주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그 뜻을 뒤집어 쓰는 翻案法의 용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운의 시 작품과 이하의 시 작품은 시적 의미와 典故의 활용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50)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華正書局, 1977, 66쪽.

51) 『李賀詩選』, <古悠悠行>

劉逸生, 『李賀詩選』, 香港三聯書店.

李商隱은, 唐 나라 皇朝가 安史의 亂(755~762)을 당해 붕괴가 가속되던 혼란한 시기를 산 시인이었다. 혼란한 시대를 산 이상은과 당 나라 말기 황소의 난을 직접 겪은 고운의 시대적 배경에는 유사성이 있다. 이상은이 진사에 급제하기 전 25세 무렵(837), 玉陽山에 들어가 道를 닦은 적이 있다. 그 때 옥양산의 入道 중에 만난 여도사인 宋華陽이라는 女冠과의 만남을 시로 표현한 작품이 몇 편 전해지고 있다. 그 중 <贈華陽宋眞人兼寄清都劉先生>의 시에서는 “淪謫千年別帝宸, 至今猶謝藥珠人.”(天宮을 떠나 인간 세계에 내려온 지 천년, 지금까지 오히려 약주공 선인들과 떨어져 있네.)이라 하여, 자신이 속세에 돌아온 지 오래 되었으나 道觀에서 인연 맺은 女道士 宋氏를 잊지 않고 있음을 작품화하였다. 고운의 전해지는 전체 작품 중 유일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留別女道士>이다. 이 시는 “每恨塵中厄宦塗, 數年深喜識癡姑. 臨行與爲眞心說, 海水何時得盡枯.”(진세에 환로의 액운을 매양 한탄했더니, 수년째 마고 [여도사]를 알게 된 것이 깊이 기쁘네. 떠나기를 당하여 더불어 진실의 말을 하노니, 바닷물이 어느 때나 다 마르게 될까?)<sup>52)</sup>의 내용처럼, 율수 현위를 그만두고 박학평사과에 응시하기 위해 終南山에 들어갔을 때 만난 여도사와의 이별을 노래한 작품으로, 세상살이에 괴로울 때 여도사를 만나 기쁨을 느꼈으며 이제는 이별을 할 때라 슬프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그 소재와 주제가 이상은의 시와 유사하다.

이상은의 시 <梓潼望長卿山至巴西復懷譙秀>는 “梓潼不見馬相如, 更欲南行問酒壺. 行到巴西覓譙秀, 巴西惟是有寒蕪.”(재동에서 사마상여 볼 수 없어, 술 팔던 곳 물어 보려고 더 남쪽으로 내려 갔었네. 파서에 이르러 초수를 찾지만, 파서에는 쓸쓸한 황무지가 있을 뿐.)<sup>53)</sup>라는 작품에

52)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1, 『桂苑筆耕集』卷二十, 125쪽, 참조.

53) 陳永正 選注, 『李商隱詩選』, 香港, 三聯書店, 1982.

사마상여에 관한 고사가 인용되고 있다. <재동에서 장경산을 바라보고 파서에 이르러 다시 초수를 생각하네.>라는 긴 제목처럼, 전 2구에서는 長卿[司馬相如]과 그의 아내 이야기, 그리고 후 2구에서는 파서의 초수를 읊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용사는, 함축적 의미가 확인되면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시작법이다. 그러기에 다만 사마상여와 그의 아내 그리고 파서의 초수를 읊은 시가 아니다. 이상은은 오히려 이 시를 통해 자신의 불우한 신세를 한탄한 것이다. 사마상여는, 監門 벼슬하던 이의 추천으로 벼슬아치가 되었고, 譙秀는 元子[桓溫]가 상소를 올려 추천해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자신은 그런 일을 해 줄 사람도 없어 슬프다는 것으로, 그 용사의 이면에 더욱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사의 이런 함축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시가 궤이하고 난삽하다고 할 것이다.

고려 후기 用事의 方法을 처음으로 소개한 책은 李仁老의 『破閑集』이다. 이 『破閑集』에는 古人名을 지나치게 用事한 것에 관한 이론이 있다.

“詩家作詩多使事, 謂之點鬼簿, 李商隱用事險僻, 號西崑體, 此皆文章一病.”(시단에서 시를 지을 때 故事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點鬼簿’라 하는데, 李商隱은 故事를 인용하는 것이 험박하다 하여 그의 詩體를 ‘西崑體’라 하니, 이것은 다 문장의 한 병폐이다.)<sup>54)</sup>

李仁老가 『破閑集』에서 소개한 李商隱은 西崑體로 일컬어지는 시풍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서곤체 시풍은 北宋 初 楊億(974~1020)·劉筠[생몰년대 미상]·錢維演(962~1034) 등에 의하여 형성된 유티주의 시풍이다. 서곤체는 대체로 외형만을 중시함으로써 내용과 개성이 없게 된 시풍이다. 따라서 서곤체 시파의 시인들은 詩句 研磨에만 힘을 썼으며, 또 시

54) 李仁老, 『破閑集』卷下

구에서 많은 人名이나 故事를 인용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그 결과 시에서 人名과 故事의 인용이 험벽하게 되었으며, 시도 난삽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인로가 『破閑集』에서 “李商隱은 故事를 인용하는 것이 험벽하다.”고 비평한 것도 모두 이런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인로가 같은 책에서 “近者蘇黃崛起, 雖追尙其法, 而造語益工, 了無斧鑿之痕, 可謂青於藍矣”(근래에 와서 蘇東坡와 黃山谷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비록 그 법[西崑體]을 따르고 숭상하면서도 조어가 더욱 공교롭고 전혀 도끼로 찍고 끌로 찍은 흔적이 없으니, 가히 청출어람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여 用事의 精切한 방법을 밝히고 있다. 이인로는, 소동파와 황정건이 用事의 방법을 西崑體에서 배우기는 했어도 조어가 더욱 공교롭게 되어 도끼와 끌로 찍은 흔적이 없는 빼어난 用事의 방법을 구사하였다고 평하면서, 가히 靑出於藍이라 할 만하다고 하였다. 황정건은 江西詩派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시파는 황정건(1045~1105)에서 시작하여 方回(1227~1307)와 劉辰翁(1232~1297)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년간 중국의 시단을 풍미하였다. 서곤체와 강서파는 모두 작품 창작에서 故事와 人名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시파이다. 따라서 서곤체와 강서파를 同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李仁老도 用事의 방법을 강서파에서 구하였다. 이인로는, 지나치게 古人名과 故事를 인용하여 시가 난삽하게 되었다고 서곤체를 비판하면서도 소동파와 강서파 황정건은 古人名이나 故事를 인용하였는데도 전혀 인용한 흔적이 없이 매우 잘되었다고 평하였는데, 그것이 用事 그 자체를 배격한 것은 아니다. 이인로는 다만 精切한 用事를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규보도 『白雲小說』에서 古人名을 남용한 것을 ‘載鬼盈車體’로 비평하고 있다. 그리고 최자도 『補閑集』에서 “李學士仁老, 言皆格勝, 使事如神, 雖有躡古人畦畛處, 琢鍊之巧, 靑於藍也.”(학사 이인로는 말마다 격이 높고 故事를 인용한 솜씨가 신과 같아서

비록 옛 사람의 발두독을 밝기는 하였지만, 다듬고 연마하는 공은 옛 사람보다도 정교했다.)<sup>55)</sup> 라고 하였다. 이규보와 최자 역시 精切한 用事의 방법이 필요함을 밝혔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비평가들은 정절한 용사에 대해서는 善評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 말 고운의 작품도 용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정절한 용사로 善評받을 수 있다.

고운은 시 <行次山陽, 續蒙太尉寄賜衣段, 令充歸覲續壽信物, 謹以詩謝>에서 “自古雖誇畫錦行, 長卿翁子占虛名. 既傳國信兼家信, 不獨家榮亦國榮.”(예로부터 비록 낮에 비단옷 입고 다님을 자랑했건만, 長卿[司馬相如]과 翁子[朱買臣]는 헛이름만 차지했으니. 이미 國信과 家信을 겸해 받았는데, 집안의 영광일 뿐 아니라 또한 나라의 영광일세.)라 하여, 이상은과 같이 사마상여를 용사하였다. 그런데 이상은이 사마상여처럼 추천을 받지 못해 벼슬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한탄했음에 비해, 고운은 추천받아 벼슬한 사마상여보다는 지금의 제 자신이 낫다고 노래하였다. 고운은 고병에게 종사관으로 등용되어 벼슬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귀국 길에 올라 당 나라 회종 황제의 사신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됨이 집안의 영광일 뿐 아니라,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여, 자긍심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상은이 즐겨 쓴 典故 활용의 방법을 고운도 즐겨 사용한 것을 보자면, 두 시인의 영향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운은 이하와 이상은의 한시 작법을 학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가 즐겨 쓴 전고의 활용이 이상은에게로 이어졌으며, 고운의 한시에서도 계승되었음을 위의 한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운의 한시 중 <和友人除夜見寄>는, “與君相見且歌吟, 莫恨流年挫壯心.”(그대와 서로 만났으니 노래 부르고 시나 읊으며, 세월 흐르도록 젊

55) 崔滋, 『補閑集』卷中.

은 날 꿈이 꺾였다고 한탄하지 말기로 하세.)라 한 것은, 白居易의 <逢舊>에서 “久別偶相逢, 俱疑是夢中. 卽今歡樂事, 放盞又成空.”(오랫만에 우연히 서로 만나니, 이 모두 꿈인가 의심스럽구나.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 술잔 놓으면 또 허전하리.)라 한 것과 시적 이미지가 동일하다. 최치원은 가까운 시대의 인물 백거이(772~846)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 나라의 과거시험 과목 중에는 賦가 중요한 것이었다. 고운 또한 과거 시험 준비에서 賦에 대한 학습이 많았을 것이다. 신라로 돌아와 헌강왕에게 雜詩賦를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작품만이 전해지고 있다. 유일한 작품이 <詠曉>이다. 그 작품의 내용 중에는 “粧成金屋之中, 青蛾正畫.”(성대하게 치장된 황금 집에는, 눈썹 푸르게 그린 미인도 있으련만.)라 한 구절이 있다. 이는, 백거이가 지은 <長恨歌>의 “六宮粉黛無顏色.”(육궁 [천자의 궁궐]의 분바르고 눈썹 그린 여자들이 얼굴빛을 잃더라.)을 點化한 것이다. 점화란, 前人의 시에 나타난 뜻을 쓰되 그 뜻의 어느 지점으로 부터 변화를 加하여 자기의 시 작품에 발전적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前人의 시구에 나타난 뜻을 그대로 되밧아 쓰고 따르면 蹈襲이 되지만, 발전적으로 변화를 가하면 점화가 되는 것이다. ‘도습’이란 옛 사람의 시구를 모방하여 그 시구에 나타난 뜻을 변화시켜 점화하려다가 발전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뜻을 그저 되밧아 따르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절’은 도습이 지나친 경우이다. 다시 말하자면 ‘표절’은, 불순한 생각으로 처음부터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뜻에서 출발하여 남의 시구나 그 시구에 쓰인 뜻을 모래 훔쳐다가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평하는 評語類 용어이다. 이처럼 고운이 백거이의 시를 점화할 정도라면, 이미 그의 작품을 학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운은 만당의 문인 백거이로부터도 한시 작법에서 영향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V. 結 論

본고는, 우리 나라 한문학의 開山鼻祖의 위치를 차지한 고운 최치원의 문학 작품 중에서도 초기의 작품에 해당하는 『桂苑筆耕集』 소재의 한시들을 고찰하여 최치원 문학 형성기의 작가적 역량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최치원의 문학에 대한 후대의 일부 부정적인 논평을 살펴본 결과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세의 비평가들이 최치원의 시문이 사륙변려문이기 때문에 괴이하고 난삽하며 중국의 故事만 인용하여 사대적 성격을 지녔으며 또한 사상적 확신도 없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런 논평은 최치원의 그 당시의 문체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운이 유학한 시기가 晚唐이고 그의 문체가 사륙변려문이기 때문에 시어가 빼어나지 못하고 뜻도 알차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운이 행한 用事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조선 후기의 김일손·조위·윤노현·박제가·홍만중 등은 고운의 문장과 시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고려 말이나 조선 초만 해도 典故의 활용에 관한 유래처의 확인은 대부분 비평가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였다. 따라서 변려문으로써 과거 시험에 합격한 고운의 典故 활용의 장점을 모두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의 서적 보급화 정도에 미루어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당 나라에서 살았고 변려문으로 당 나라 과거 시험을 준비한 고운의 독서의 범위를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문인들이 따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桂苑筆耕集』 소재 한시 60首 중 卷十七에 <七言紀德詩> 30首는 후대 목적시의 본보기가 되었다. 紀德詩는 각 首마다 前 1·2구에서 고병의 뛰어난 행적을 제시하고 後 3·4구에서는 故事를 인용하여 그의 덕을 찬양한 작품이다. 고려 시대 이규보가 지은 <東明王篇>은 5언 28구로 이

루어진 장편 영웅 서사시이다. <東明王篇>은,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동명왕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규보가 재창조한 작품으로, 동명왕의 탄생 이전의 계보를 밝힌 序章과 동명왕의 출생에서부터 건국의 성업을 이루기 까지를 묘사한 本章, 그리고 후계자 유리왕의 경력을 다룬 終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紀德詩 30首는, <東明王篇>의 본장 곧 동명왕의 성업을 이룬 내용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도,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하여 송축한 목적이었다. 紀德詩는, 각 首마다 前 1·2구에서 그의 뛰어난 행적을 제시하고, 後 3·4구에서는 故事를 인용하여 그의 덕을 찬양한 작품이다. <용비어천가>의 구조도 전절 2구체와 후절 2구체로 되어 있다. 전절은 중국의 고사를 전제로 제시하였으며, 후절은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신라 말의 최치원의 紀德詩 30首는 그런 목적시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桂苑筆耕集』所載 한시 60首의 소재는 다양하다. 紀德詩 30首는, 兵·射·城·관찰사를 지냈던 地名 등으로 고병의 무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과, 詩·筆·風流·祠堂·家門·文才 등 문관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들이다. 『桂苑筆耕集』卷二十에는, 倂난·여도사·송별 등, 재당 시절의 일상사를 드러낸 소재가 그 일부이며, 바람·해변·세상사·봄 등, 향수를 유발시킨 소재들이 있다. 그리고 돌봉우리·파도·모래밭·쥐불놀이·두견새·갈매기·산위 위태로운 바위·키 작은 소나무·단풍잎 등은, 경물시의 소재가 된 것들이다.

『桂苑筆耕集』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前代 문학사상의 계승적 측면은 우선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 등 종교적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와 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는 전통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여 영웅적 인물을 예찬하고 칭송함으로써 평화로운 國泰民安의 평화로운 정치 현실을 작가적 이상 세계로 제시한 점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典故를 활용하는 用事으로써 문학 작품의 사상적 깊이와 내용적 충실성을 갖출 수 있다는 문학 사상을 터득한 점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대 한시 작법의 학습은 당 나라 이하와 이상은·백거이 등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 나라 이하와 이상은은 典故 활용을 잘한 문인이었다. 고운의 한시에도 전고의 활용이 많았다. 따라서 이하·이상은의 典故 활용의 詩法을 고운이 문학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고운이 백거이의 <長恨歌>를 <詠曉>에서 점화를 할 정도였다면, 그의 작품을 학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문집이라 할 수 있는 『桂苑筆耕集』 소재 한시를 통해 고운의 초기 문학적 역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운의 문학적 역량은 형식성을 중시하던 당시의 文風이 반영되어 그의 모든 시작품에는 典故의 활용이 있었다. 그러나 그 典故 활용이 잘못되어 난삽하고 괴이하며 시어가 빼어나지 못하고 뜻도 알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사가 적 재적소에 행해져 靑出於藍의 평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고승 유일이 선포한 것처럼, 고운의 典故 활용의 문제는 고운만의 독특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기 작품으로도 한문학의 '開山鼻祖'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基本 資料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 『崔文昌侯全集』  
『唐六典』卷四.  
『十八史略』, 『春秋戰國』  
魏慶之, 『詩人玉屑』, 『用事』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論語』, 藝文印書館, 1981.  
周世鵬, 『游清涼山錄』, 『崔文昌侯全集』  
『桂苑筆耕集』, 『初投獻太尉啓』卷17.  
金富軾, 『三國史記』  
金駟孫, 『遊頭流錄』  
大江維時, 『千載佳句』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白雲小說』  
李仁老, 『破閑集』  
崔滋, 『補閑集』  
徐居正 外纂, 『東文選』  
徐居正, 『東人詩話』  
徐居正, 『筆苑雜記』제1권, 『大東野乘』卷三.  
成倪, 『慵齋叢話』卷之一, 『大東野乘』卷一.  
魚叔權, 『裨官雜記』, 『大東野乘』卷四.  
劉逸生, 『李賀詩選』, 香港三聯書店.  
黃俊良, 『海東雜錄』6, 『大東野乘』卷二十三.  
許筠, 『惺叟詩話』, 『惺所覆韻稿』卷十.  
李晬光, 『芝峯類說』卷八, 景仁文化社 影印本.  
任環, 『玄湖鎖談』  
曹偉, 『東史纂要』  
尹根壽, 『月汀漫筆』, 『大東野乘』卷五十七.  
尹耆獻, 『混定編錄』9, 『大東野乘』, 卷七十.  
陳永正 選注, 『李商隱詩選』, 香港, 三聯書店,  
鄭克後, 『西岳誌』, 서울대학교奎章閣所藏, 木版本.  
朴齊家, 『北學議』, 大洋書籍, 1972.  
朴趾源, 『燕巖集』卷 I, 경인문화사, 영인본.

- 洪萬宗, 『詩話叢林』, 『小華詩評』  
洪萬宗, 『海東異蹟』, 『洪萬宗全集』, 太學社, 1982.  
申緯, 『警修堂全藁』  
釋 有一, 『四山碑錄序』  
柳在泳, 譯註『破閑集』, 一志社, 1994.  
民族文化推進會 編, 國譯『동문선』2, 1998.  
民族文化推進委員會, 國譯『退溪集』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國譯『대동야승』 I · IV · V · XIV · XVII, 1985.  
洪贊裕, 譯註『詩話叢林』(上)3, 通文館, 1993.  
安大會 譯註, 對校譯註『小華詩評』, 國學資料院, 1995.  
崔濬玉 編, 『孤雲崔致遠先生事蹟考』, 寶蓮閣, 1982.  
崔英成, 『崔致遠 全集』 ①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8.  
崔英成, 『崔致遠 全集』 ② 孤雲文集, 아세아문화사, 1999.  
崔瀟, 『拙藁千百』 卷二, 「送奉使李中父還朝序」,  
『韓國佛教全書』 제6책.

## 2. 論著

- 金福順, 「新羅 下代 華嚴宗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6~24쪽.  
金鎔坤, 「高麗 顯宗代의 文廟從祀에 대하여」,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金重烈, 「崔致遠의 文學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53~154쪽.  
金惠淑, 「崔致遠의 詩文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閔丙秀, 「高麗時代의 漢詩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44~77쪽.  
朴魯春, 「崔致遠의 詩作品數 小考」, 『東洋學』 5집, 단국대학 출판부, 1975.  
宋恒龍, 「崔致遠의 思想研究」, 『韓國哲學思想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成樂喜, 「崔致遠의 詩精神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92~

201쪽.

- 徐首生, 「東國文宗 崔孤雲의 文學」, 『語文學』 통권 1, 2호, 한국어문학회, 1956.
- 申采浩, 『朝鮮上古史』 上卷, 삼성문화문고, 1977, 66쪽.
- 梁光錫, 「崔孤雲의 思想과 詩」, 『우리문학연구』3, 우리문학연구회, 1981.
- 李家源, 「震域 漢文學의 鼻祖 孤雲 崔致遠」, 『韓國名人小傳』, 一志社, 1975.
- 李九義, 「崔孤雲의 漢詩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이구의, 『崔孤雲文學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49~297쪽.
- 李能雨, 「新羅의 知性」, 『한국의 人間像』 5, 新丘文化社, 1966.
- 李在云, 「孤雲 崔致遠의 思想과 歷史意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10~51쪽.
- 李慧淳, 「新羅 末 賓貢諸子들의 詩에 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7집, 1984.
-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華正書局, 1977, 66쪽.
- 윤승한, 『白民』, 3권 2호, 1947.
- 張南姬, 「李商隱의 愛情詩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35~58쪽.
- 正中書局編 審委員會, 『唐代詩學』, 臺灣正中書局, 1973. 31쪽.
-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95, 53쪽.
- 鄭堯一, 「文學 本質論類 用語로서의 ‘意’와 ‘氣’의 概念」, 『仁荷語文研究』, 第6號, 2003, 495~545쪽.
- 崔英成, 「崔致遠의 哲學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22~104쪽.
- 崔益翰, 「崔孤雲의 文化的 地位」, 『春秋』, 2권 6호, 1931.
- 河運淸, 「李商隱詩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258~277쪽.
- 허경진, 『孤雲 崔致遠 詩選』, 평민사, 1990, 7~102쪽.

## ABSTRACT

## Study on Choi, Chi Won's Korean Poems in Gyewonpilgyeongjip

Yun, In-Hyun

This study examined 60 Korean poems in Gyewonpilgyeongjip to discuss Choi, Chi Won's writing capacity in the early years of literature.

The 30 poems in Gyewonpilgyeongjip Vol. 17 were written to admire virtue and became the examples of objective poems in later years. When Choi became Goh, Byung's secretary, he devoted these poems to admire Goh's virtue. All of these poems are quatrain with seven characters in each line. These 30 poems summarize Goh's life. They expressed that Goh was a man of Confucian views and Taoistic ideas and was talented in writing poems, drawing, and shooting arrows, and stated why it is reasonable for Choi to depend on Goh. Gyewonpilgyeongjip Vol. 20 contains 30 Korean poems - 15 quatrain with seven characters in each line and 15 Chinese-style poems with five characters in each line. The 60 Korean poems in Gyewonpilgyeongjip included 30 poems that admire Goh's heroic performances and other poems that express Choi's efforts to settle in a foreign land, nostalgia of his hometown after living in a foreign land for 18 years, the pleasure of going back home, and depiction of objects that reflect himself. In the depiction of objects, Choi particularly reflected his endeavors to overcome difficulties in reality.

Gyewonpilgyeongjip also shows succession of literatures from previous periods, considering that it expresses religious ideas, such as Confucian and Taoist ideas, in literature and sings about society, reality, and one's situations. Choi displayed his literary capacities to admire and praise heroic characters and presented peaceful society and politics as his ideal world. In addition, Choi learned that he could utilize preceded pieces to achieve ideological depth and sincere contents in literature. Some critics in later years said that Choi's poems are bizarre and unorganized, but

they were incorrect. Because Choi used many preceded poems, his pieces were not bizarre or unorganized, but were rather faithful. These aspects of Choi indicate his writing capacities in early years.

It seems that Choi was influenced by Yi, Ha and Yi, Sang Eun from the Tang Dynasty who were talented in using existing pieces. Considering that Baek, Geo Yi's pieces were brought into Choi's pieces, we know that Choi was also influenced by Baek, Geo Yi, the literary scholar of the Late Tang Dynasty. Choi's Gyewonpilgyeongjip shows how Korea's literature styles were established. As Hong, Man Jong stated, Choi can be considered the founder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Gyewonpilgyeongjip · writing capacity · shows succession of literatures from previous periods · influenced.

논문투고일 : 2007. 5. 19

심사완료일 : 2007. 5. 30

게재확정일 : 2007. 6. 8